

“갈고 닦은 기량 발휘, 지역 명예 높이겠다”

**전국장애인동계체전 오늘 개막
‘마스크 프리’ 쏘 경기 정상 진행
광주 30명 출전... 은 2·동 4개
전남 70명... 종합순위 6위 목표**

장애인 동계스포츠의 대축제인 제20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가 10일 개막한다. 광주와 전남 선수단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최대한 발휘해 지역의 명예를 높이고 순위 상상을 이룬다는 각오다.

이번 장애인 동계체전은 13일까지 나흘 동안 강원도 일원(평창·강릉·횡성·춘천)에서 펼쳐진다.

이번 대회는 정부의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마스크 프리’ 대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개·폐회식 등을 생략한 지난해와 달리 이번 대회에선 모든 행사와 경기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개회식은 10일 오후 4시 알펜시아리조트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된다.

올해로 20회를 맞이한 동계체전은 알파인스키, 스노보드, 크로스컨트리스키,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 컬링, 빙상(쇼트트랙) 등 7개 종목에 총 1025명(선수 475명, 임원 및 관계자 550명)이 참가한다. 장애인동계체전 역사상 처음으로 참

가인원이 1000명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대회에는 알파인스키 슈퍼대회전(선수부) 번외 경기가 열리고, 휠체어컬링 2인조 세부 종목도 신설됐다.

광주시 선수단은 빙상, 컬링, 크로스컨트리스키, 바이애슬론 등 4개 종목에 선수 13명, 지도자 8명을 비롯한 임원 및 보호자 등 총 30명이 출전한다.

광주는 빙상에서 2개의 은메달과 크로스컨트리스키에서 동메달 2개, 바이애슬론에서 동메달 2개 등 총 6개의 메달 획득을 목표로 잡았다. 목표를 달성하면 2022년 대회(16위) 보다 2단계 상승한 종합순위 14위가 예상된다.

김진영(지적장애)이 빙상 여자 500m와 1000m 성인부에서 각각 은메달에 도전한다. 김진영은 지난 대회 빙상 여자 500m에서 은메달을 차지했다.

김세정(지체장애)은 여자 좌식 바이애슬론 스프린트 7km·여자 좌식 바이애슬론 스프린트 4.5km·크로스컨트리스키 3km·크로스컨트리스키 4.5km에 출전해 4개의 동메달을 노린다.

마은혜·전영아·김미영·박금옥으로 구성된 광주 여자 컬링팀은 지난 6일 강릉컬링센터에서 사전경기로 치러진 4인조 DB(정각장애) 8강에서 강원에 0-15로



광주 맹분호(왼쪽)·이동석 조가 지난 8일 강릉컬링센터에서 제20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사전경기로 치러진 혼성 휠체어컬링 2인조 WC-E(선수부) 16강전 경북의 구자원·최문정 조와 경기를 펼치고 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공**

져 4강 진출에 실패했다.

맹분호·이동석이 출전한 광주 혼성 휠체어컬링 2인조 WC-E(선수부)는 지난 8일 16강전에서 경북의 구자원·최문정 조에 6-8로 아쉽게 역전패를 당했다.

전남 선수단은 빙상, 컬링,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스키, 바이애슬론, 아이스슬레지하키 등 6개 종목에 선수 36명, 감독 및 보호자 13명, 임원 21명 등 총 70

명의 선수단을 파견했다.

전남은 금 2·은 5·동 2개 등 총 9개 메달 획득으로 지난해와 같은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빙상 남자 500m와 1000m에 출전하는 유승현(지적장애·호반건설)이 금메달 1개 획득을 노린다.

최재형(지적장애·덕수학교)은 남자 크로스컨트리스키 4km 클래식에서 금메달

을, 크로스컨트리스키 6km 클래식에서 은메달에 각각 도전한다.

최은정(청각장애)은 여자 크로스컨트리스키 4km 클래식과 6km 클래식에서 각각 은메달이 기대된다.

박영순(지적장애)도 여자 크로스컨트리스키 4km 클래식과 6km 클래식에서 각각 은메달 사냥에 나선다.

남태공과 남미연(이상 시각장애)은 바이애슬론에서 각각 동메달 1개 획득이 예상된다.

단체종목에선 지난해 유일하게 은메달을 획득했던 휠체어 4인조 컬링팀의 선전이 기대된다.

이번 대회 처녀 출전한 전남 정각 여자 컬링팀은 지난 6일 사전경기로 열린 4인조 DB(선수부) 8강에서 전북팀에 6-21로 져 4강행이 좌절됐다.

방민자·정승원으로 구성된 전남 혼성 휠체어컬링 2인조는 8일 전북과의 16강전서 14-0으로 이기고 8강에 진출했다.

전남장애인체육회 박정현 상임부회장은 “동계종목 시설 기반이 열악한 전남이지만 선수 개개인은 전남도를 대표한다는 자부심과 향후 동계올림픽 출전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좋은 경기력을 발휘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

WBC 20개국 최종 엔트리, 오늘 생중계로 공개

한국·일본·호주·중국·체코 한조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하는 20개국 최종 30인 명단이 10일 오전 8시(한국시간) MLB 네트워크를 통해 공개된다.

MLB 네트워크는 9일 “생방송을 통해 전체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개국은 최종 엔트리 마감 기한인 8일까지 WBC 조직위원회에 30인 최종 명단을 제출했다. 최종 명단 제출 이후에도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른 선수로 대체할 수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달 4일 최종 명단을 발표했다. 이강철 KT 위즈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 대표팀은 오는 14일 미국 애리조나주 투슨의 키노 스포츠콤플렉스에 모여 WBC 대비 훈련에 돌

입한다.

한국은 WBC 1라운드에서 일본, 호주, 중국, 체코와 한 조에 속해 경쟁한다.

‘숙적’ 일본도 오타니 쇼헤이(LA 에인절스), 다르빗슈 유(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등 빅리거 5명을 포함한 최종 명단을 일찌감치 공개했다. 일본 대표팀은 17일 미야자키현에서 합동 훈련을 시작한다.

같은 조에 속한 국가 중 중국, 체코는 한 수 아래로 여겨진다.

한국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복병’ 호주의 최종 명단이다. 객관적인 전력상 한국이 우위지만, 호주는 방심할 수 없는 상대다.

한국은 첫 경기 상대인 호주를 반드시 잡아 8강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각 조 상위 2개 팀에 2라운드 진출 티켓이 주어진다. **뉴시스**

이강인, 세비야 상대 공격포인트 노린다

12일 원정... 상위권 도약 가능

한국 축구 기대주 이강인(22·사진)이 레알 마드리드전 선전에 이어 세비야를 상대로 공격 포인트 적립을 노린다.

이강인 소속팀 마요르카는 오는 12일 에스타디오 라몬 산체스 피스후안에서 열리는 2022-2023시즌 스페인 프로축구 라리가 21라운드 세비야전 원정 경기를 치른다.

마요르카는 승점 28점으로 리그 10위, 세비야는 승점 21점으로 리그 16위다.

마요르카는 직전 경기에서 거함 레알 마드리드를 격침시키며 사기가 올라 있다.

세비야는 최근 홈경기에서 3연승을 달리고 있다. 세비야는 지난해 10월 마요르



카 원정에서 1-0으로 이겼다.

이강인은 직전 레알전에서 골을 넣거나 도움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역습 과정에서 주력을 과시하면서 공격력을 뽐냈다.

이적설에 휘말렸던 이강인이 레알전에서 실력을 과시해 현지 언론을 놀라게 했다. 올 시즌 2골 4도움을 기록 중인 이강인이 공격포인트를 추가해 승리를 견인한다면 마요르카는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다. 마요르카와 6위 비야레알 간 승점차는 3점에 불과하다. 4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승점 차이는 7점이다. 이강인이 마요르카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뉴시스**



레이저 공격 당하는 네이마르

파리 생제르맹(PSG)의 네이마르가 8일(현지시간) 프랑스 마르세유의 스타드 벨로드로에서 열린 2022-23시즌 쿠프 드 프랑스 16강전 마르세유와의 경기 중 얼굴에 레이저 공격을 받고 있다. 리그 1위 PSG는 2위 마르세유에 1-2로 패하며 탈락했다. **마르세유-AP/뉴시스**

광주도시공사 女핸드볼, 서울 원정서도 무패 행진 이어갈까

오늘 대구시청·12일 SK전 8경기 연속 무패 행진 중 우승 부담감 극복이 관건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의 무패 행진이 이번주 서울 원정 2연전에서 이어질지 주목된다.

오세일 감독이 이끄는 광주도시공사는 10일 오후 6시 서울 SK핸드볼경기장에서 대구시청과 2022-2023 SK핸드볼코리아리그 2라운드 두 번째 경기를 갖는다. 12일에는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SK슈가글라이더스와 2라운드 세 번째 경기

를 치른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6일 경남개발공사와의 시즌 첫 경기(28-25 승)를 시작으로 8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또 최근 5연승도 기록 중이다.

광주도시공사는 이번주 서울 원정 2연전도 모두 쓸어담아 연승과 무패 기록을 늘려가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이번 시즌 우승을 노리는 광주도시공사가 선두 자리를 지키기 위해선 반드시 잡아야 할 상대다. 광주도시공사는 7승 1무, 승점 15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2위 삼척시청(6승 1무 1패·승점 13점)과는 승점 2점 차에 불과하다.

광주도시공사 선수들이 연승 부담을 극복하고 제 기량을 발휘하는 게 승부의 관건이다.

오세일 광주도시공사 감독은 “선수들이 우승에 대한 부담을 갖는 것 같다. 선수들에게 모든 팀을 이겨야 한다기 보다는 매 게임 긴장하고 최선을 다하자고 독려하고 있다”며 “훈련할 때 선수들이 밝은 표정으로 나서는 걸 보면 어느 정도 부담감을 이겨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